

단순 톨 판매만은 'No' 데이터통합업체로 자리매김

Jane D Bronson
1242 Shellingham Drive
33 503 1212

지난해 기업용 솔루션 업계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던 BI(비즈니스인텔리전스)가 올해는 DW(데이터웨어하우스)라는 오랜 동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ETL(데이터 추출 변환 로딩)툴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통합 솔루션의 영역은 BI를 벗어난 영역으로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고 그 부분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 최근 데이터통합 전문업체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어센셜소프트웨어를 둘러봤다.

글 / 신승철 기자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까지 데이터 자체를 확보하고 통합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데이터 자체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데이터 클렌징, 정제 등의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데이터통합 솔루션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어센셜과 한국그룹원소프트웨어, 그리고 트릴리엄 솔루션을 국내 공급하는 렉스켄 등 관련 솔루션 공급업체들의 입지도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ETL툴 분야의 선두업체인 한국어센셜은 최근 데이터통합용 스위트 제품과 실시간 데이터통합 솔루션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전사적 데이터통합의 국내 리더로 '우뚱'

어센셜은 시장에 이미 잘 알려진 ETL툴 'DataStage' 제품을

97년도에 국내에 처음 선보인 이후, 지속적인 R&D와 M&A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립적인 기업데이터통합공급사로 재탄생했다. 특히 지난 2002년 3월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업체인 배리티테크놀로지를, 2003년 8월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업체인 머케이터소프트웨어를 인수함으로써 현재는 전사데이터의 효율적인 통합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단일 플랫폼 상에 보유하고 있다.

한국어센셜은 이러한 풍부한 솔루션에 국내기업들의 데이터통합 및 EDW 구축 수요가 맞물리면서 국내 데이터통합 솔루션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통합정보계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ETL툴 공급업체로 선정되는데 이어 현대해상의 EDW(전사적데이터웨어하우스), 교보생명의 재무 회계 프로젝트에서도 ETL툴 솔루션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등 올 상반기 금




용권 대형 정보계 프로젝트를 독식하다시피 했다. 이 회사는 또 포스코가 지나 4월부터 시작한 MES(조업이행시스템) 데이터이행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한국어센설은 국내 데이터통합 솔루션 시장에서의 강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사이트의 하나였던 포스코 레퍼런스를 확보한데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

이밖에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DW 구축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경북대병원, 길병원, 코오롱그룹, 정보통신부, CGV 등이 발주한 EDW 및 DW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금융권 바젤Ⅱ 등으로 EDW 수요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해 대비 40% 정도의 매출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방법론 · 통합플랫폼 · 서비스로 중무장

실질적으로 BI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며 성장을 거듭했고, 최근에는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를 분석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ERP의 대안으로까지 부상하며 하나의 트렌드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정의하는 BI는 의사지원 툴(OLAP, 질의 및 리포팅 등), 애플리케이션(ABC/M, BCS, CPM 등), 데이터통합 및 품질관리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 경우 어센설의 솔루션은 편의상 데이터통합 및 품질관리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어센설은 파워라인을 DW나 BI 분야에 국한된 IT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의 툴 판매에서 벗어나, 기업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이해하고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방법론(Methodology), 통합플랫폼(Enterprise Integration Suite 7.5), 서비스(Consulting Services)로 무장한 통합솔루션을 통해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가트너 보고서에서도 ETL툴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통합 솔루션의 영역이 BI를 벗어난 영역으로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전형적인 BI영역인 DW구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스템 이관이나 마스터데이터관리, 운영 혹은 레거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한 영역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진 것.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 이공계 출신(미국 렉서스대 전자공학과)으로 산업 트렌드를 빨리 읽을 수 있으면서도 탁월한 경영감각까지 겸비한 최현민 지사장이 지난 2001년 9월 한국어센설에 합류한 이후, 성장 가속도가 붙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션 스위트 7.5' 버전을 새로 출시하면서 컨설팅 영역까지 개척하고 있어 한국어센설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nterview

최현민 한국어센설소프트웨어 지사장



▶ 데이터통합 솔루션을 잇단 출시하고 있다. 사업의 무게중심이 바뀐 것인가.

- 어센설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선택과 집중' 전략은 단일 공급사로부터 포괄적인 전사적 데이터통합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어 하는 시장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어센설은 핵심적인 ETL기술에 기반해데이터품질관리, 엔드투엔드메타데이터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통합 제품군을 폭넓게 확대해 옴으로써 전세계 유일한 데이터통합 솔루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 기업 데이터통합의 세계적인 리더라 주장했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

- 각종 평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전사적 데이터통합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매출액 등 각종 지표에서 타 경쟁사 대비 탁월한 우위를 나타냈다. 지난해 성장률은 39%로 경쟁사인 모업체가 감소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전문기관에서도 우량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세계 3,000여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다 레퍼런스(약 100개)를 갖고 있다.

▶ 국내시장 동향과 사업전략을 밝혀달라.

- 국내에서도 점차 데이터통합과 데이터품질은 CRM, SCM, ERP 등과 같은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데이터통합 솔루션의 잇단 출시로 그동안 ETL 전문업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향후 국내 ETL툴 시장의 1위 제품인 데이터스태이지의 주도권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통합솔루션의 매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